위암 생존자의 경험

이 명 선(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연구목적〕 위암 생존자들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관한 근거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얻어진 암에 대한 인식, 삶의 주요 문제점,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주요 전략 등에 관한 주요 범주들을 찾아내고 이들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근거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 위암 치료가 끝난 후 생활하는 생존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10명(남자 2명, 여자 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표집을 위한 선택 기준은 병기, 성별, 수술방법, 항암 등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자로 선택하였으나, 분석이 진행되면서 주요 범주와 관련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목적적 표집을 이용하였다.

〔연구도구〕 개인 심층면담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추후면담을 실시하여 자료의 포화를 도모하였다. 일부는 부부가 함께 면담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타당성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분석방법〕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Strauss와 Corbin이 제시한 개방코딩, 연결코딩, 선택코딩을 이용하였으며, 이 과정동안 "지속적인 비교분석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분석을 효율화하였다. 메모와 도식도 근거이론 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주요 문제점으로는 체력 저하, 합병증과 재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는 정보추구, 식이 및 민간요법 수행, 건강한 생활양식 확립, 영적인 생활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간호사들은 암생존자들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체력을 형상시키고, 암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발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상담을 통하여 생존자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